



**SK이노, 베트남서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 협약**

SK이노베이션은 베트남 짜빈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 기업 맹그로브와 맹그로브 숲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현지에 축구장 42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 300 헥타르 규모의 맹그로브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LG U+, 유폴투벨 제휴사 44곳으로 확대**

LG유폴플러스는 이달 멤버십 혜택 유폴투벨 제휴사를 44곳으로 늘렸다고 7일 밝혔다. 7월 휴가철을 맞아 ▲10일 아일랜드 캐슬(유폴투벨 특가 제공·동반 2인까지) ▲14일 서울랜드(파크이용권 55% 할인) ▲16일 아쿠아필드(입장권 40% 할인) 등 여름 실내·외 액티비티 이용에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유폴플러스



**두산에너빌리티-제주대 '해상풍력 기술교류회'**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대학교와 함께 '2025 해상풍력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3회째이며 오는 8일까지 제주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과 영광풍력실증센터 등지에서 진행된다. /두산에너빌리티



**iM금융그룹,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iM금융그룹은 황병우 회장이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동참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iM금융



**신한투자증권, 자사 우수고객 특별 초청 행사**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6월 10일과 26일, 자사 우수고객 대상 특별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1회차 행사인 이원일 셰프와 함께하는 푸드 클래스는 6월 10일 진행됐다. 이어 2회 차 행사인 달항아리 센터피스 플라워 클래스는 6월 26일 열렸다. /신한투자증권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미래 이끌 대학생 30명 선발

**'온소 퓨처스 컬리지' 4기 운영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멘토들과 실질적 역량 강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대학생 챌린저 육성 프로그램 '온소 퓨처스 컬리지' 4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온소 퓨처스 컬리지'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8주간의 여름방학 집중 프로그램이다.

이번 4기에는 공학, 약학, 경영, 무용, 디자인 등 국내 17개 대학 20여 개 전공의 학생 30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었다. 참가자들은 팀을 이루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소 퓨처스 컬리지 4기 입학식 단체사진.

/현대차 정몽구 재단

실행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사회혁신 전문가 강연, 브레인 라이팅 실습, 스타트업 멘토링, 키스톤 캠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동명대학교 정병익 교수(문제 정의에 대한 방법론과 실습),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좋은 기획을

만드는 문제 설정 방법 강연 및 워크숍), 독립광고대행사 디마이너스원의 김동길 대표(크리에이티브의 방식)로 문제 해결하기), 기술솔루션 이세라 디렉터(지식 확산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기), 빅모빌리티 서대규 대표(비즈니스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기)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재단의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펠로 기업의 대표(어글리랩 서호성 대표, 이너시

아 김효이 대표, 더뉴그레이 유대영 대표)가 멘토로 함께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무성 이사장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대학생들이 온소 퓨처스 컬리지 4기에 함께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차, 라오스에 정비기술 재능기부

엔지니어 등 14명 봉사 참여 이론·실습 병행... 3개 과정 진행 아이오닉 5 등 교보재로 활용

현대차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국-라오스직업기술개발원에서 정비기술 재능기부 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현대차 하이테크 센터 소속 엔지니어 등 14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개발원 강사진과 현대차 라오스 대리점 정비사 등 총 61명이 수료했다.

교육은 현지 수요가 높은 디젤 엔진을 비롯해 전기차,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으로 구성됐

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3개 과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라오스에서 판매 중인 아이오닉 5, 투싼, 액센트 차량을 교보재로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이 이뤄진 한-라 직업기술개발원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2004년 KOICA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라오스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국제구조개발 NGO 플랜코리아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비기술 해외 재능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양성운 기자



동국제강그룹 71주년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홀딩스

## 동국제강그룹, 창립 71주년 기념행사

위기 극복·미래 도약 다짐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사가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사가 창립기념일을 맞아 창업 정신을 되새기며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다짐했다.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영상 시청과 장기근속자 시상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3사 모두 모태 기업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창업

정신을 계승해 7월 7일을 창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이날 동국제강그룹은 공식 유튜브에 장상태 동국제강그룹 선대 회장의 육성으로 구성된 창립 71주년 기념 영상 '시간의 대화'를 공개했다.

기념식 후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3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눔지기 봉사단'이 서울·부산·포항·인천·당진 등 사업장 인근 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차현정 기자 hyeon@

## 알테오젠, 이영필 부사장·CPO 영입

바이오헬스 개발 전문가



발과 밸리데이션, 의료가기 개발까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CPO는 통상 I T·플랫폼 업계에서 제품 전략 책임자 직책으로 쓰이지만, 알테오젠은 이번에 이영필 박사를 CMC, 품질, 생산, 제품화 전반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사급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알테오젠은 30년 이상 바이오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온 이영필 박사(사진)를 부사장이자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LG생명과학(현 LG화학 생명과학본부)과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24년 이상 근무하며 CMC(화학·제조·품질) 전반을 이끈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으로부터 총 7건의 항암·면역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획득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까지 유전자치료 벤처기업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연구개발(R&D) 전략 수립과 사업개발을 이끈 바 있으며, 세표주 개발부터 분석법 개

회사는 이번 영입을 통해 CMC 전주기에 걸친 그의 전문성과 알테오젠의 상업화 전략 간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필 부사장은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자의 경영철학을 계승하고, 알테오젠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 키움증권, 걸음 기부캠페인 2.4억보 기록

소나무 3362그루 심은 효과

키움증권은 걸음 기부 캠페인 '키움과맑음 시즌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키움과맑음 시즌2는 6월 한 달 동안 키움증권 전 임직원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걸음기부 플랫폼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루 동안 걸은 걸음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한 걸음은 총 2억4249만보를 기록했다. 거리로 환산하면 17만km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통해 달성한 탄소 저감 효과는 2만2191kg이다. 30년산(生) 소나무를 최대 3362그루 심은 효과와 동일하다.

걸음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총 7265명이었다. 키움증권 임직원은 533명, 일반 시민은 6732명이었다.

/원관희 기자 wkh@

### 인사

- ◆ KBS △광주방송총국 총무국장 이경환 △방송문화사업국장 박승찬
- ◆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기금운용계획과장 진민규

### 부음

▲이명달씨 별세, 이화춘(전 국제문제연구소 상임고문)씨 모친상=7일, 경남 함양제일장례식장 101호, 발인 9일 오전 9시. 055-962-4002